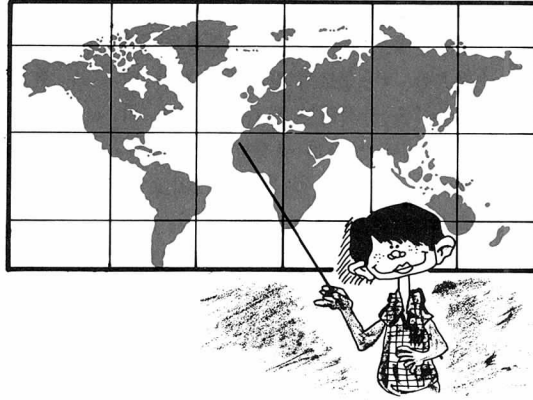




國際氣流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이번호까지 지난 1년간 아시아나항공의 孫元日고문님이 國際氣流란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孫고문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호부터는 대한항공의 宋衡鈺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편집자 註〉

미국

을 평균 3.8%인하할 예정이다.

미국도 ISDN서비스 개시

미국 각지에서 ISDN서비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ISDN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벨계통의 전화회사들로서 각 담당지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표준 인터페이스에 근거해서 ISDN을 실시해 왔다.

AT&T 장거리 요금 인하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장거리전화 요금 인하신청서를 제출했다. AT & T의 이러한 조치는 MCI 커뮤니케이션스와 US스프린트 양사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FCC가 同社の 요금인하를 허가해 줄 경우 AT & T는 장거리 요금

AT&T 가두팩스서비스 개시

AT&T가 전국의 AT&T 전화센터를 사용한 팩시밀리 서비스인 「팩시밀리 휘스트」를 개시, 일반 손님이 세계의 어느곳과도 팩시밀리의 送受信이 가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세계 가두팩시밀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전미국에 있는 4백2십5개소의 센터로부터 문서를 송신하거나 세계 각지로부터 문서를 수신할 수 있다.

「900번 전화서비스」 급속 성장

전화를 사용한 유료 정보제공비즈니스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시외전화국번이 9백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의 AT&T의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회선서비스는 지방에 있는 각전화회사들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MCI도 올해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내용은 주식등의 시장동향이나 뉴스, 날씨정보, 복권의 당선번호 등이다.

벨서양 전자우편에 진출

전화지주회사의 하나인 벨대서양이 FCC의 정식 인가를 받아 전자 우편사업에 진출한다. 同社는 텔레네트 커뮤니케이션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윌라델피아어지구에, 올해 1월에는 수도 워싱턴지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PTI, IDC에의 出資 연기

국제디지털통신(IDC)이 동사에 자본참가할 예정인 미국 태평양 텔레시스 인터내셔널(PTI)과 출자에 대한 교섭을 가졌다. 현재 PTI의 출자문제는 미국 사법성의 인가를 받지 못한 실정인데 이같은 사태가 계속되고 진전이 없다면 PTI는 자본참가의 권리를 상실케 된다.

IBM, 타사와 접속가능한 전자우편 개발

IBM은 동사와 DEC, 왕의 OA시스템 이용자가 간단히 전자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캐나다의 아트랙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개발,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Next사 광자기 디스크내장 유닉스 시스템 발표

Next사는 지난해 10월 2백5십6M 바이트의 광자기디스크와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유닉스 워크스테이션 「The Cube」를 발표, 미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초부터 이 상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이번의 신제품은 오래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던 것으로 가격은 6천4백9십불. 한편 CPU는 25MHz 동작의 68030이며 주기억은 표준 8M에서 최고 16M바이트이며, OS는 UNIX 4.3BSD의 확장판 「Mach」를 표준으로 갖추었다.

2인치 HDD 개발

직경 2.5인치의 가장 작은 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개발되었다. 무게가 약2백5십5g 내장된 인터페이스는 AT 사양과 SCSI사양을 따르고 있으며, IBM, Apple 두 기종에 접속이 가능하다. 현재는 20M바이트의 용량이나 40M바이트 용량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1백M 바이트까지 대용량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가격은 대량주문의 경우 4백불이며 랩톱이나 휴대용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팩시밀리용 보드의 발달

미국내에는 100만대의 팩시밀리가 설치되고 있으며 세계중에는 3백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시 91년까지 연간 50만대씩 미국내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특히 1천불에서 1천8백불 정도의 개인용 형태가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팩시밀리와 퍼스널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방법이 여러가지 있었으나 이번에 인텔사가 새로운 통신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표준화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에 많은 메이커가 호응하고 있다.

일본

KDD 국제 ISDN 서비스

KDD는 올해초 개시할 예정인 국제 ISDN 서비스에서 국제디지털 전용회선과 ISDN의 가입자회선을 共用하는 새로운 형태를 추가할 예정으로 우정성과 절충하고 있다. 국제 ISDN은 일본과 미국, 영국을 연결하고 2B+D의 기본 인터페이스와 23B+D의 1次群 인터페이스로서 B채널을 사용한 회선교환과 패킷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선의 공용은 국제표준 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B채널 가운데 몇개를 전용선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ISDN회선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회선의 공용으로 기본요금이 싸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규칙 일본안을 ITU에 제출

새로운 국제전기통신 업무규칙을 토의하기 위하여 11월말경부터 호주의 멜본에서 개최하고 있는 WATTC(세계전신전화주관총회의)에 우정성이 지난해 10월 중순 일본안을 ITU(국제전기통신연합회) 사무총국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통신사업자, 경제단체연합회, 컴퓨터메이커등 각업계로부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써 국제 VAN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형태에 대하여 현실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며 ITU사무총국장의 시안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이미 개시되어 있는 「2국간 협정에 의한 국제 VAN」을 기정 사실로서 인정하게 하였고 각 국가간에 맺은 「특별약정」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별약정」이라고 해도 X.75등의 CCITT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의견도 첨가되어져 있다.

통산성, 하이비전 세미나 전국서 개최

통산성은 차세대 TV로서 주목되고 있는 하이비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전국 8개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이비전은 NHK가 1990 년도에 실험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 고도로 정밀한 화면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외의 분야에서도 일반 기업내에서의 영상정보시스템이나 공동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도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NTT도 하이비전 실용화 경쟁

NHK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비전방송 이용에 대해 NTT가 하이비전전송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서 전개해나가기 위해 하이비전 방송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이비전 전송서비스로는 영화·인쇄·의상·유통업 등의 산업분야와 도서관·미술관·박물관·의료·보건기관·교육기관등의 공공분야등이 있다. 현행 TV방식(NTSC)에 비하여 약5배의 신호량을 갖는 하이비전 화면을 광화이버를 사용해서 디지털전송을 하려면 1,2G비트/ 초의

초고속회선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적은 신호량으로 전송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하이비전 실용화의 중요 포인트다.

日電 위성통신 효율화 개발

일본전기사가 VSAT(초소형지구국)를 이용한 위성통신 네트워크에 효과가 큰 복조(무선신호를 베이스밴드의 디지털 신호로 전환) 기술은 개발하였다. 이 기술의 개발로 네트워크의 거점수가 같으면 종래의 방식에 비하여 트랜스폰더의 대역을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통신 경비를 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되었다. 동사에서는 민간 위성을 쏘아 올리는 올해에는 제품을 출하할 예정으로 있다.

홈시스템 규격제정으로 실용화 촉진

홈시스템(HBS)이 실용화될 단계에 이르렀다. HBS는 전화기로 조명이나 현관자물쇠등을 일괄제어 하며 외부에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어콘, 비디오장치, 전기밥솥) 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가정의 자동화시스템. HBS는 가정내에 기간전송로(홈버스)를 부설하여 콘트롤장치를 거쳐서 가전제품이나 주택설비기기를 접속 자동화가 이루어 진다. 지금까지 일본의 홈버스 시스템은 가전메이커마다 독자적인 사양의 시스템을 판매, 가격이 높았으며 상호접속성이 나빠 보급이 부진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일본전자기기공업회가 OSI 참조 모델의 레이어 1~3에 상당하는 HBS 규격을 정한 바 있으며, NTT가 지난해 10월에 HBS 규격에 부합하는 홈전화의 발매를 계기로 각사가 모두 이에 맞는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자동전화

일본 이동통신(IDO)이 구립 15일부터 도쿄지역에서 자동전화서비스를 개시했다. 기본요금인 회선사용료는 월 1만3천엔으로 NTT보다 28%정도 싼 값이다. IDO는 먼저 도쿄를 중심으로 반경 약 40km 지역과 주요 자동차도



國際氣流

로를 따른 반경 50km 지역까지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은 올해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나고야 중심부에서 반경 약 40km의 지역 및 주요도로변 약 50km의 지역으로 올해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IDO가 제공하는 터미널은 세가지로써 자동차내 전용전화와 옥외전용의 어깨걸이 무선기, 그리고 이 두가지가 복합된 형태의 터미널이며 3종류 모두 입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 NTT와 가장 다른 점은 IDO는 보증금이 없으며 월 사용료가 약 28% 싸다는 점이다.

통신기기생산 2조3천 6백억엔

최근 통산성의 「생산동태통계」에 의하면 87년도의 통신기기생산액이 처음으로 2조엔을 돌파, 2조 1,139억엔을 기록, 전년도 대비 17.6% 증가했다. 또한 작년도 통신기기생산액은 통신기계공업회의 예상에 의하면 2조 3,601억엔, 전년도비 11.6% 증가로 전망된다.

ISDN표준 G4팩시밀리 속속 등장

ISDN (종합디지털통신망)용 G4팩시밀리가 지난해 말부터 속속 제품화되고 있다. ISDN용 G4팩시밀리의 국제표준이 작년 11월 14일부터 CCITT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되고, 그후 일본 국내에서 14개사가 그 표준을 채용한 G4팩시밀리의 상호접속 테스트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부터 각사가 일제히 제품을 발표하였다. G4팩시밀리는 회선교환 또는 패킷교환으로 통신이 되기는 하나 패킷교환서비스가 개시되는 올해 봄 이후에도 당분간 패킷교환용 제품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팩시밀리와 같이 대량 연속데이터를 보내는 패킷교환을 사용해도 그다지 경제적 효율이 없고, 당면한 INS 네트워크의 패킷교환 스루풋트가 최대 9,600bps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2백만~3백만엔이 주류가 되고 있다.

JAS 예약터미널 200대 발주

아담네트사는 최근 일본에어시스템(JAS)으로부터 항공권의 예약터미널장치를 약 200대 주문 받았다. 지금껏 아

담네트사는 해외메이커 제품의 수입·판매 전문이었으나 최근 개발부를 사내에 발족시켜 이번에 그 터미널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예약터미널은 여행대리점 등에 설치, 거기서 항공권의 예약을 하기 위한 창구터미널. 예약터미널은 가격의 저렴화를 위해 발권기능을 없애고 교환권만을 출력, 고객은 그것을 공항의 카운터에 제시함으로써 항공권을 받게 된다. 터미널은 인텔리전트가 없기 때문에 장치구성이 간단하다. 한 대의 가격은 10만엔대로 종래의 발권기능을 갖춘 터미널의 약 10분의 1 정도이다.

유럽

西独과佛, 통신서비스合作회사 설립

서독 분데스포스트(BP)와 프랑스 텔리콤은 최근 통신관련의 부가가치서비스 합작회사인 「오이콤」을 설립할 것에 합의했다. 독·불의 통신분야에서의 합작회사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92년말의 유럽공동체(EC)의 시장통합에 대비한 조치이다.

스위스국철, OA 열차 운영

객차내에서 OA기기를 구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객차가 작년 11월부터 스위스의 철도에 등장했다. 객차 안에는 퍼스널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 등이 갖추어졌다. 매점에서 사무용이나 퍼스널컴퓨터의 소프트웨어도 살 수 있다.

스웨덴 랩톱이 호조

스웨덴의 퍼스널컴퓨터 시장에서는 최근 랩톱이 급속도로 신장, 그 시장점유율도 10%를 넘고 있다.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장차 랩톱이 시장의 30~40%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에서 랩톱이 발매된 것은 지난 85년이고, 그해의 판매대수의 초년도가 5,500대였으나 87년은 1만 700대로 거의 배로 늘어났다. 퍼스널컴퓨터의 총판매대수는 10만 5천대로서 랩톱이 10%를 약간 넘어섰다. ♣